

구약 창세기 요셉과 신앙 여정 소설처럼 강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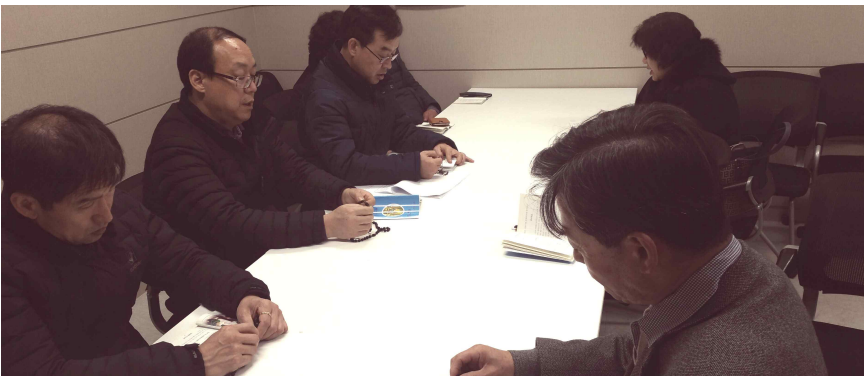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소속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3월 20일(수) 11시 교육관 그리스도 왕 홀에서 1학기 성서공부로 구약 창세기 『요셉과 신앙 여정』 교육을 시니어 학생과 봉사자 42명이 받았다.

이날 강사 이성숙(세실리아)은 ‘구약성서 창세기 37~42장에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고 이집트로 온전 스무 낮에 팔려가서 포티파르의 종이 되었다. 요셉의 몸매가 아름다워서 포티파르의 아내의 온갖 유혹을

받았으나 요셉은 주인어른의 부인과 같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도망을 하였으나 곧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꿈 풀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파라오가 전해 듣고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게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곱해 동안 풍년이 들고 기근을 대비하여 비축양식을 남겨 두십시오. 파라오는 자신의 신하에게 요셉을 재상으로 이집트 땅을 그대 손 아래로 두오.’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재미있는 소설 강의처럼 하였다.



『본당 화합의 웃놀이 한마당』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 지향 9일 기도 시작



본당 사목협의회는 2019년 3월 22일 오후 8시 교육관 1층 집무실에서 『본당 화합의 웃놀이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위한 9일 묵주기도를 사목협의회 위원 10명이 모여 바쳤다.

기도 첫째 날 『본당 화합의 웃놀이 한마당』 행사로 인하여 전 신자가 화합하고 추진과정에 모든 지혜와 다양한 의견을 화합으로 집약할 수 있도록 지향을 두고 사목협의 회장의 주송으로 묵주기도를 환희의 신비 5단과 청원기도, 감사의 기도 성모 찬송으로 성모님 발현하여 말씀하신 “달아 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를 불렀고 네가 간원 하는 은혜에 도무지 거절할 수 없구나”란 응답을 간원 하면서 9일 기도를 바쳤다.



